

2019 새 설계

김철우 보성군수

“100세 이상 최장수 지역... ‘더불어 행복한 복지 보성’ 실현”



“100세 이상 전국 최장수 지역에 걸맞은 ‘더불어 행복한 복지 보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복지 보성의 초석을 다지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인력 보강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보성을 위한 길만 생각하겠다는 김 군수는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전립선 질환 검사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을 통해 수술비 걱정 없는 의료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마을경로당에 식사·청소 도우미를 배치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로 윤곽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산업인 농어업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도 제시했다.

김 군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농기계와 벼 공동육묘장, 비가림하우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 제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해

전문인력 보강 치매 예방·치료 앞장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농가소득 보장

영유아 보육·돌봄 공적 서비스 강화

소규모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확대해 농외소득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교 꼬막 어촌지원 융·복합사업으로 별교 꼬막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6차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군민중심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과의 소통 정책도 변화없이 추진한다.

김 군수는 “마을 순회 현장 군수실과 군민 신문고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장 및 사회단체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군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에 대해선 “지방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보육과 돌봄서비스 등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이 친화적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속했다.

김 군수는 이어 “천년의 역사와 문화 관광기반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문화체육관광을 실현하겠다”며 “울포해수욕장 관광지와 해양종합휴양지 조성 사업, 여자인 별교곶별 해양 테마공원과 특량만 해양관광 진흥 지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해 남도의 해양관광 선두 주자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 정비와 경기장 개보수로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개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4개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 다양한 체육 시설 활성화로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보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안도 제시했다.

김 군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마을하수도 시설 확충, 노후상수도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별교역~부용교 주차 차로와 인도정비, 보성을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별교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문화예술융합형 시장 육성,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업 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고, 취업하기 좋은 보성을 만들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100세 이상 전국 최장수 지역에 걸맞은 ‘더불어 행복한 복지보성’ 실현
- ▲농어민의 값진 땀방울 가치를 인정받는 ‘다함께 잘사는 농림어업’ 육성
-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군민중심 공감행정’ 구현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를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 ▲천년의 역사와 문화 관광기반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문화체육관광’ 실현
- ▲주민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선사하는 ‘편안한 정주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 ▲권역별 균형개발과 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해 우리 모두는 보성군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2019년은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발전과 혁신, 변화의 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 사업 ‘탄력’

수면 임대 계약 우선 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면임대 우선 협상대상자로 고흥신에너지(주)가 최종 선정됐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청 팔영산

홀에서 평가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위원들은 정량평가(40%), 정성평가(40%), 가격평가(20%), 가·감점 등

종합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정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해창만 담수호 100ha에 95MW 규모의 발전을 하는 시설로 고흥군은 직접 투자 없이 자산 임대 방식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한 부분 나눠 주는 주민참여형(주민 참여율 22%)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최근 사업진행 과정에

서 추락한 행정의 신뢰도 만회는 물론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선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흥군은 2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수면 임대 계약을 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3월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곡성 시골마을 노인들 씹짓돈 모아 이웃돕기 성금

‘기부 한파’ 속 곡성 시골마을 노인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아 기부에 동참했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사진)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모은 씹짓돈 94만350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군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을 통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 시니어클럽에서는 지난해 11개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399명의 노

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공공사업을 통해 번 돈이니 이웃과 나눠야 한다’며 소액의 금액을 조금씩 모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하게 됐다.

노인들의 좋은 뜻에 호응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직원도 기부에 동참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어르신이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기부에 나섰다는 점에서 나눔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추진

구례군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재추진한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선동면 자사리 온천지구에서 지리산 종석대까지 3.1km(국립공원 내부 1.2km·국립공원 밖 1.9km) 구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중단했던 용역을 재개 할 예정이다.

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지난 2017년 5월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기본 설계 용역’과 같은해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비 416억원을 투입해 지리산 케이블카를 완공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군은 지난해 2월 용역을 중단했다.

또 계획이 세워지지 않음에 따라 군은 사업 중단까지도 고려했지만 김순호 군수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의지를 밝히면서 중단됐던 사업은 재추진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구례군 관계자는 “군수 신년사를 통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의사를 밝혀 현재 재추진하기 위해 검토 하고 있다”며 “용역업체 등에 중단했던 용역을 재개해 줄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세얼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최선의 노력”

서희수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장



“보성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장에 취임한 서희수(56) 지부장은 “고향에서 지부장으로 일하게 기쁘다”면서 “직원 화합과 고객만족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지부장은 “농촌복지사업과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농협을 만드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별교읍 출신인 서 지부장은 지난 1987년 농협에 입사한 후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전남영업본부 현장지원단장과 울촌산단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